



위성미가 2009년 12월(현지시각) 하와이 카후쿠의 터틀 베이 리조트에서 벌어진 SBS 오픈 골프 토너먼트 1라운드중 3번째 티에서 드라이브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미, 폭풍 샷

SBS오픈 1R 6언더 공동 2위...신지에 공동 35위

미운 오리새끼가 마침내 백조로 변신할 조짐이다.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20·나이카골프. 미국 이름 미셸 위)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회원으로서 치른 데뷔전에서 폭풍샷을 터트렸다. 위성미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후쿠의 터틀베이리조트 골프장 파머코스(파72.6천560야드)에서 열린 2009년 LPGA투어 개막전인 SBS오픈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때렸다. 코스레코드를 타이 기록인 65타를 친 안젤라 스텐퍼드(미국)에

게 선두를 내줬지만 1타 뒤진 공동 2위에 자리잡은 위성미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위성미는 2002년부터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왔지만 작년 캘리포니아 스쿨을 통해 LPGA 투어 회원자격을 얻은 이후 이번이 처음 치르는 공식 대회다. 캘리포니아 스쿨 이후 겨우내 맹훈련을 거듭했다는 위성미는 전과 달리 영리하고 안정된 플레이로 코스를 차분하게 공략했다. 드라이버가 페어웨이 왼쪽으로 자주 빗나갔지만 무리한 경기운영 대신

안전하게 빼내는데 주력했고 드라이버 대신 3번 우드 티샷으로 페어웨이를 지키는데 신경을 부쩍 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그린 플레이는 이날 경기를 치른 선수 가운데 가장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을만큼 결정이 없었다. 한편 위성미와 신인왕을 다툰 것으로 기대되는 신지에(21·미레에셋)는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바꾸며 이븐파 72타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제출했다. 신지에는 위성미와 달리 안정된 샷을 날렸지만 그린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코리안 트리오' 상쾌한 출발

최경주·위창수·양용은 PGA 첫날 상위권

코리안 브라더스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와 최경주(39·나이키골프),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

비치 내셔널 프로대회 첫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위창수는 13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페블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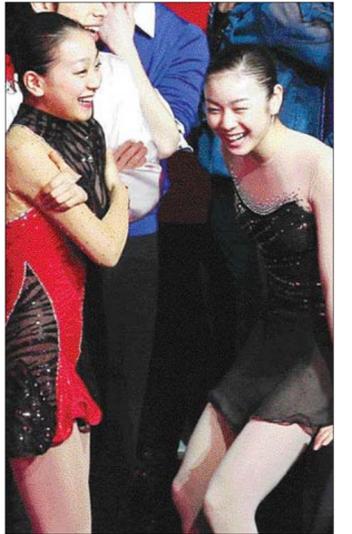
골프링크스(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결들여 4언더파 68타를 쳤다. 지난 주 뷰익인비테이셔널에서 컷을 통과하지 못했던 위창수는 공동 13위에 오르며 7언더파 65타를 친 공동 선두 로버트 개리거스와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에 3타차로 따라붙었다. /연합뉴스

'연아 vs 아사다' 주목하라

ESPN, 동계올림픽 5대 라이벌전중 가장 먼저 꼽아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두고 주목할 만한 라이벌 5인방을 선정하면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동갑내기 맞수' 김연아(19·사진 오른쪽)과 아사다 마오(일본·사진 왼쪽)를 가장 먼저 꼽아 눈길을 끌고 있다. ESPN은 13일(한국시간) 'One year out: Rivalries brewing for 2010(앞으로 1년, 2010년을 준비하는 라이벌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피겨 여자 싱글과 남자 싱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아이스하키, 여자 투지 등 5개 종목의 맞수들을 소개하면서 김연아와 아사다의 관계를 조명했다.

ESPN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때 나이 가 어려서 참가하지 못했던 아사다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후보 중 한 명"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김연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어 "4대륙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가 뛰어난 쇼트프로그램 연기로 72.24점의 최고점을 세웠고 아사다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해 종합 3위를 차지했다"라며 "두 선수의 대결은 마치 1988년 캘거리 올림픽 피겨 남자 싱글에서 미국의 브라이언 보이타노와 캐나다의 브라이언 오셔의 대결만큼이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본즈 '약물 스캔들'

MLB 통산 홈런왕 아론으로 바뀔 듯

알렉스 로드리게스(34·뉴욕 양키스)가 약물복용을 시인하면서 미국프로야구에 또 한차례 검은 회오리가 부는 가운데 통산 홈런왕을 바꾸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버드 셀러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13일 미국 전국지 'USA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기록집에서 통산 최다 홈런왕을 배리 본즈(45)가 아닌 헨크 아론(75)으로 바꿀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본즈는 지난 2007년 아론이 31년간 보유했던 이 부문 최고기록(755개)을 새로 썼고 지난해까지 762개를 때렸다. 그러나 본즈는 2001년 73개로 한 시즌 최다홈런 신기록을 세울 때부터 약물의혹에서 한번도 자유롭지 못했고 2003년 대표적인 약물추문인 '발코스캔들'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체육회장 선거 8파전...역대 최고 경쟁률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제37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자들이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쳤다. 대한체육회는 13일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8명이 후보등록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후보는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히는 박용성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박상하 국제정규연맹 회장, 이상철 대한체육회 부회장, 유준상·장경우·장주호·박종오·최만필씨 등이다. 8명의 후보가 몰린 것은 체육회장 선거 사상 역대 최대로 지나치게 난립했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내달 28일 이라크와 평가전

지옥의 이란 원정에서 값진 승점 1점을 얻고 귀국한 축구대표팀이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분수령인 북한과 '코리아 더비'(4월1일·서울월드컵경기장)를 앞두고 모의고사 상대로 이라크를 골랐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다음 달 28일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른다. 시간과 경기장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북한전이 예정된 오후 8시와 수원 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환속

- ▲최정식·이명자씨 장남 홍준군 이상재(광주경찰청 정보1계장)·이명숙씨 차녀 향(광주보훈병원) 양=14일(토) 낮 12시 화이트하우스 2층(크리스탈홀)
- ▲강철수·마경순씨 장남 순형군 김일두(광주컴퓨터 대표이사)·조경희씨 장녀 민정양=14일(토) 낮 12시 신양파크호텔 1층(그랜드볼룸)
- ▲유형용(법무사)·정애자씨 차남 동훈(광주기독병원 비뇨기과) 이상욱(신일교통 대표)·강순임씨 장녀 수연(광주 남초등학교) 양=14일(토) 낮 12시20분 메리이트 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 ▲최해규·이영자씨 장남 현철(전남대 교수)군 김민재(하남중학교)·김인순씨 장녀 은주(영동대·광주여대 외래교수) 양=14일(토) 오전 11시50분 한국교육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예식홀
- ▲이성기(대전전문건설협회 광주지회 사무처장)·김희숙씨 장남 동욱(남산정보)군 김순열·정미숙씨 차녀 혜란양=15일(일) 낮 12시30분 웨딩의 전담 금호 30층(아시아나홀)
- ▲김희민(전 광주일보 시판부 차장)·한경자씨 장남 현승군 형병연·김금순씨 차녀 은미양=15일(일) 낮 12시30분 갤러리아 웨딩컨벤션 1층(다이아몬드홀)

부음

- ▲윤경원씨 별세 민수·민호·영

- 속씨 부친상=발인 14일(토)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 ▲이연중씨 별세 홍복·신자·수경·은경·현경씨 부친상=발인 14일(토) 학동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314
- ▲안숙경씨 별세 김명성·명준(대창버스 총무부장)·순복·순희·영주씨 모친상 이정옥 시모상 김재규·김욱(위드인베스터스 사장)·남주안(미국 페이스대학 경제학부 석좌교수) 빙모상=발인 14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김규장씨 별세 승룡·상효씨 부친상=발인 14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MY-MO 심는가발 마이모

"내머리같은 자연스러운 새로운 모발의 마이모"

개업 7주년 기념세일(최상품 39만원 금발가) 한달간!

신재형 0.03mm 마이크로 가발

주 224-2738 010-4809-2738

아이엘리시아

상품권 판매

062) 671-1199